

가수 비, 내년 1월 15일 새 앨범 공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내년 1월15일 컴백한다.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티저 포스터를 공개하며 협업 프로젝트 콘셉트의 새 앨범 소식을 알렸다.



이민호



대륙 강타한 이민호 ‘한한령이 뭐야?’

〈한류금지령〉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렌샹 모델로 낙점 웨이보 등에 광고 사진·동영상 속속 올라와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해적판도 나돌아

최근 중국 측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움직임 속에서도 한류스타 이민호가 현지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과시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한류스타와 그 파생효과가 여전히 현지의 관심 대상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19일 현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민호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렌샹(聯想·레노버)의 모델로 최근 낙점됐다. 업체 측은 20일 신제품 ‘레노버 엣지 엘(Edge L)’ 론칭쇼를 열기에 앞서 이민호를 내세운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현재 중국 SNS인 웨이보와 유튜브 등에는 이민호가 해당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큰 키와 잘 생긴 외모, 남성적 매력으로 중국 팬들 사이에 ‘남신’으로 통하는 이민호의 입지와 인기가 한류 규제 조치 속에서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중한 현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민호를 모델로 한 광고가 온라인에 한정된 프로모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민호는 이미 8월 말 해당 기업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송 광고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는 ‘한한령’의 영향이 일지 부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한령’은 중국 측이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광고의 방송을 금지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류 규제 조

치에 반응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한류스타와 그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관련업계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민호의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는 온라인 광고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20일 예정된 프로모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이민호가 주연인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드라마는 중국에 정식으로 판권을 수출한 적이 없지만, 현재 영상(해적판)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드라마가 국내에서 방송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는 해적판이 나돌고, 웨이보에도 드라마 클립(2~3분짜리 동영상)도 오른다. 드라마에 대한 현지의 이처럼 비정상적인 관심의 정도가 이민호의 인기를 입증한다는 것도 역설적인 시선이 나온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도깨비’ 공유에 홀린 중국 웨이보 인기 순위 상위권

연기자 공유도 ‘한한령’을 비껴가고 있다. 공유는 케이블채널 금토드라마 tvN ‘도깨비’로 중국 시청자를 홀리고 있다. ‘커피프린스 1호점’(2007) 이후 거의 1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중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중국 통신원인 손성욱 베이징 한삼국제교류문화교류중심 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깨비’가 빠르게 현지 한류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정식으로 방송사나 동영상 사이트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드라마가 불법 유통되고 있지만 중국 SNS인 웨이보 인기 순위에서 ‘푸른 바다의 전설’과 함께 ‘도깨비’가

오를 정도다.

이에 공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역설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그가 주연한 영화 ‘부산행’이 7월 국내 개봉 후 9월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해적판)로 퍼져나간 바 있다. 손성욱 팀장은 “공유가 올해 SNS를 강타한 ‘부산행’을 통해 중국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깨비’가 등장해 공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미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의 차기작이란 점도 힘을 더해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공유



‘일밤-은밀하게 위대하게’ 강다니엘 사진제공 | MBC

〈은밀하게 위대하게〉

시청률 수직상승 ‘은위’ 인기 비결은 ‘바람잡이’

과거 ‘몰래카메라’ 콘셉트를 내세운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은밀하게 위대하게’ 인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은밀하게 위대하게’(은위)가 4일 첫 방송한 뒤 매회 시청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8 일에는 동시간대 경쟁작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5.9%)을 제치기도 했다. 이 같은 인기의 핵심은 게스트와 그의 활약이라는 데 방송가의 시선이 모인다.

‘은위’는 과거 이경규가 진행한 ‘몰래카메라’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포맷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초대된 게스트가 거짓 상황에 무리 없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진행 솜씨가 중요하다. 이에 제작진은 매회 주인공이 되는 출연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스타들을 활용한다. 이들이 ‘바람잡이’로 등장해 상황을 더욱 자연스럽고 실감나게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기획의도에 따라 강타는 이진호와 양세찬이, 솔비는 박나래 등이 등장했고, 강타와 솔비는 그동안 방송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매력을 공개해 프로그램의 재미를 높였다. 뒤이어 25일 김호진·김지호 부부가 갈등을 빚는 내용에 어떤 스타가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연출자 안수영 PD는 19일 “출연자의 성격과 관심사까지 모두 파악해 아이템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섭외가 가장 어렵다”면서도 “바람잡이”인 스타가 직접 상황에 가담하는 등 역활이 커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순하트로 사랑 담아’ 연기자 김윤해, 차태현, 김유정, 배성우, 서현진과 주지훈 감독(왼쪽부터)이 19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언론사회에 참석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시

“방탄소년단 티켓 어디 없나요?” 남미까지 점령

내년 2월부터 칠레·브라질·미국 등 투어 브라질 5분만에 매진…뜨거운 인기 확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성과에 이어 미주 공연으로 다시 한 번 ‘케이팝 대표 가수’로서 위력을 과시했다.

내년 2월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윙스 투어’에 나서는 방탄소년단은 3월 칠레 산티아고, 브라질 상파울루, 미국 뉴어크, 애너하임 등 4개 도시에서 7회에 걸쳐 공연을 펼친다. 이에 앞서 최근 진행된 현지 예매에서 도시마다 빠르게 매진 속도가 빨라졌다. 브라질은 5분 만에 매진됐다고 19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나누어 동시에 예매를 실시한 칠레의 경우엔 41분 만에 오프라인 입장권



방탄소년단

까지 모두 1만5000석이 매진됐다. 이를 두고 현지에선 “같은 공연장(산티아고 모비스타 아레나) 최단 매진 기록인 마돈나의 52분을 경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빅히트 측도 19일 “칠레 케이팝 공연 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매진됐다”는 현지 프로모터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 같은 열기 속에 현지 팬들은 추가 공연

을 물론 더 큰 규모의 공연장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공연은 현지 팬들과 프로모터의 요청에 따라 각 1회씩 추가했다. 브라질 공연은 2만명 규모에도 약 5만명이 동시 접속했고,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현지 티켓 판매처인 ‘t4’에 공연 추가나 공연장 변경 요구를 트위터 해시태그(#)로 표출했다. 덕분에 현지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브라질과 국경을 맞댄 아르헨티나 팬들 역시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고 싶다”는 뜻을 트위터 해시태그로 나타냈다.

방탄소년단은 10월 발표한 2집 ‘윙스’로 한국가수 최초 빌보드200 3회 연속 진입, 2주 연속 차트 유지 등 기록을 세웠다. 온라인상 인기지수로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소셜50 차트에선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송혜교, 中 윤봉길기념관에 ‘한글 안내서’ 기증



송혜교

연기자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윤봉길 의사 서거일(1932년 12월19일)을 맞아 중국 상하이 윤봉길기념관에 한글 안내서 1만부를 제작해 기증했다. 송혜교는 “중국에 있다고 하지만 한글 안내서 없는 곳이 꽤 있다”며 “국내의 방문객 유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교수는 “앞으로도 송혜교와 함께 안내서를 계속해서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내서는 이날부터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김종국·송지효 “런닝맨 남은 출연료 기부”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하차가 결정된 김종국과 송지효가 남은 출연료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국 측은 19일 “출연료를 좋은 일에 쓰자는 데 (송지효와)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송지효의 소속사 관계자도 “내년 2월 종영 전까지 출연료를 모아 이웃을 위해 쓰기로 했다”는 뜻을 알렸다. 김종국과 송지효는 지난주 ‘런닝맨’의 새 시즌을 앞두고 출연자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보도를 통해 하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제작진을 비난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난 바 있다.

앱스토어 게임 매출 랭킹 12월 19일 기준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리니지2 레볼루션	Netmarble Games
2	리니지 레드나이츠	NCSOFT
3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4	FIFA ONLINE 3 M	NEXON Company
5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6	듀오리진	WEBZEN INC.
7	프렌즈팝콘 for Kakao	Kakao Corp.
8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FingerTips
9	클래시 로얄	Supercell
10	프렌즈팝 for Kakao	NHN Pixelcube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